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개원특강

바람직한 기독교 언론의 방향



손봉호 기학연 이사,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교문.

I.

내가 여러 신문에 칼럼을 쓰고, 많은 방송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일 큰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 온 정성을 기울이는 성실함

이 세상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주 가끔 '소 발에 쥐잡기' 식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잘 해야 우연이라도 잘 되는 법이다.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다시 뜯어 고치기를 반복해야 좋은 논문이 나오지, 적당히 써서는 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 잘 하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무가치한 일은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매사 온 정성을 기울여 하다 보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 놓으니까 제대로 하더라."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KBS 내 최고령, 최장수 해설위원으로 남아 있게 된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15초간의 텔레비전 광고에 몇 백 만원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해설하는 시간 3분30초는 긴 것일 수 있다. 그

러므로 나는 해설 하나를 위해 매우 열심히 준비한다. 방송을 통하여 언론 소비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그래도 뭐 하나 느꼈다 또는 배웠다라고 느껴야지,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죄가 아닐까.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책임감

신문사에는 정신 없이 뛰어다니는 바쁜 기자,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는 기자, 두 종류의 기자가 있다.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편집국장은 바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앞의 기사를 불러 취재를 시킨다. 맡기면 잘 해내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앉아 노는 기자의 경우,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다. 무책임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용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맡겨진 일 혹은 그 이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하는 것은 독자 혹은 시청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시작이며 중심이다.

나는 어떤 일을 맡아서 적당히 하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면 훨씬 더 잘 할 텐데 다른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하고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안하



나는 어떤 일을 맡아서 적당히 하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면 훨씬 더 잘 할 텐데 다른 이들의 기회를 차지하고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에 대한 죄악인 셈이다.

고 있다면, 마치 고장 난 고물차가 길을 막고 서 있어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차도 못 가게 하는, 사회에 대한 죄악인 셈이다.

II

훌륭한 기독교 언론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좋은 글쓰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좋은 언론인의 기본이다. 주제와 관련된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앞뒤 문장의 순서, 문단의 연결 등 논리적 체계 뿐 아니라, 글의 리듬을 맞춰 써야 보다 깔끔한 느낌으로 속 시원하게 듣고 읽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알기 쉽게 쓴 글이 독자 혹은 청중에게 더 와 닿는다.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거나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언론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알고 있는 걸 활용하면서 모르는 것을 전달하기, 즉 ‘접촉하면서 끌어올리기’ 전략을 통해 극대화 될 수 있다. 수용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하나 한 뼨한 소

리가 되고,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 어렵게 하면 이해부족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청중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2. 사실에의 열정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이다.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주관적인 상상력은 언론에서 배제해야 한다. 때로는 나한테도 손해가 되고, 난처한 입장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보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열(passion for fact and truth)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믿을 수 있다. 제일 정확하다.’라는 신임을 받게 된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고 특히 기독교 언론인들에게 중요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다(God is faithful)’란 말씀이 있다. 즉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로 묘사된다.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의 신임도는 ‘C’로 결코 높지 않다. 증인과 증거는 믿을 수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는 기독교 언론인들과 그들의 보도는 더욱 믿을 만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거짓말인데,



기독교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친절하고, 모든 다른 면에서 훌륭하다 해도 병을 못 고치면 의사로서는 훌륭한 것이 아니듯이 좋은 기독교 언론인이란 철저한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이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설화에서조차 정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다. 가령 우리의 고전 <별주부전>에서는 토끼가 거짓말을 해서 살아 남지만, 서양의 「이솝우화」에서 양치기소년은 거짓말을 해서 늑대에게 잡혀 먹힌다. 또한 정직과 관련하여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위증의 근거가 심해서 재판에 회수된 사람이 일본보다 762배 많았고,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은 4천배가 더 많다고 한다. 거의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이다. 선진국이라함은 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교양 수준에 따라 구별된다. 경제력은 세계 12~13위 이면서 투명성은 세계 40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인, 성직자, 언론인 등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시킨 결과이다. 언론인의 인격이 대중들에게는 교육이 된다. 드러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숨겨진 교육 과정(hidden curriculum)”인 것이다.

3. 공정성

편견과 교만은 둘 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니, 고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미숙함이 그 한 사람에게만 남아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므로 더 큰 문제가 된다. 언론인의 편견은 영향력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성찰(省察)은 공정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자기 생각을 좀 비우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느껴볼 수 있는 감정이입(empathy)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 인격의 폭을 넓혀 준다.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것, 그로인해 사회가 양극화하는 것에는 수준 낮은 언론의 역할이 컸다. 기독교인이 자기가 보수 혹은 진보라고 스스로 분류하는 것은 자존심 없는 것이다. 진보 혹은 보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며, 보수가 성경적이면 보수, 진보의 주장이 성경적이면 진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기독교적 원칙, 즉 성경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판단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폭발해 버리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의 증거이다.

우리 사회는 연고주의로 인해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정성에 대한 신념이며 용기이다. 나한테 아무리 잘 해 주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 했다,”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었더라도 잘 한 건 “잘 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판할 때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억울하게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것이 된다.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보라. 이용할 만한 연고가 없으면 새로운 연고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뇌물’이다. 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출 23:8). 기독교 언론인이라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성품을 닮아, 공정성에 대한 정열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대하 19:6~7).”

기독교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한다. 기도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모든 다른 면에서 훌륭하다 해도 병을 못 고치면 의사로서는 훌륭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일단 철저한 신앙에 근거하여 ‘좋은 언론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이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좇아 능력 과인격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